

동시를 통해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Fathers in Children's Poems

정 순 화*

Chung, Soon Hwa

김 시 혜**

Kim, Shi 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children's viewpoints on their fathers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Sixty nine elementary school children (2nd and 5th grade) were asked to write poems about their fathers. Through the poems, they described their feelings towards their fathers in their own words.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prominent and popular description for the father was in terms of the provider of the family. Because of the excessive emphasis on the provider role, fathers are very busy and tired, and can not Participate actively in their children's daily life. As a result, many fathers are in an on-looker position in their homes, and their children are spoiled. On the other hand, children described their fathers as warm, kind-hearted, respectable and great images that gave everything to their children. They liked and sincerely appreciated these aspects of their father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ideal image of the father and the actual provider image of the father, children experience conflict and a psychological deficit of a father. We believe that this problem will be improved through the fathers' own awareness of their role which pays more attention to our children's wellbeing and a reform of the existing social system.

Ⅰ. 서 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에 비해 주변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해 주듯,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논문들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

*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강사

**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강사

당이나 맹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이러한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사르트르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유익한 것은 일찍 죽여주는 것이다.”(조석희, 1996)라는 냉소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 특성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동물에서도 아버지는 누군지도 알 수 없거나 영역을 지키는데 급급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는 거의 본능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역할은 실제로 어머니의 역할에 비해 미미했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아동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결핍 패러다임(deficit paradigm)을 이용하여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이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으나(Lamb, 1995), 최근에 이르러서는 양친가정에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특성으로 인해 부성이 결핍 혹은 왜곡된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제기되어 아버지의 존재유무보다는 오히려 역할 수행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따라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아동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은 아동이 주변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아동의 지각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계량적 방법에 의존해 왔으며, 이러한 양적 연구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축적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구성이 어디까지나 성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순수하게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동 자신의 지각이 발달의 중요한 변수라면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눈을 통해 그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Geertz, 1983), 그 가운데 현상학적 방법은 아동의 생활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아동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잣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Spradly, 1979). 현상학적 방법은 아동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만이 갖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김시혜, 1995).

현상학적 연구의 범위는 시, 소설, 일기, 동화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록 간결하지만 경험의 진수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를 선택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학생의 ‘장날’이라는 시에서,

“아버지는 빈손으로 장에 가셨다.
어머니는 한보따리 이고 가셨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오셨다.
어머니는 한보따리 이고 돌아오셨다.
보따리를 내려놓자마자 이것 먹어라 하고 어머니는 얼른 내어주신다.
그래도 남자라고 아버지는 지랄하신다.”

아동은 빈손으로 장에 가신 아버지를 무거운 짐보따리를 이고 가신 어머니와 대비시키고, 또

술에 취해 돌아오신 아버지와 한보따리 이고 오신 어머니를 대비시킴으로써, 더 이상 참아내기 힘든 아버지에 대한 적의와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다(유안진, 1994). 6행의 짧은 시를 통해 아동은 어떤 질문지라도 측정하기 어려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고, 이러한 표현의 간결성과 농축성은 동시가 갖는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시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 보고, 나아가 아버지의 모습이 왜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각 되었으며, 또 앞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버지 역할에 대한 조명

Margaret Mead는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는 필요하나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는 우발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Bigner, 1986). ‘어미 잃은 날이 아비 정 떼는 날’이라는 옛 속언이나(유안진, 1994), 계모와 자녀간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전래동화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는 가족구조가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되어 있었고 사랑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었고 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었던 우리 전통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간혹 자녀의 양육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원상으로 풀이해 보더라도, 한자로 ‘父’는 사람이 오른손에 한개의 회초리를 든 모양을 본떠서 아버지를 상징화한 상형자이다.

즉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뜻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이를 표현하면 버릇이 없어진다하여 애정적인 표현을 끊임없이 자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나아가 우리 생활의 중요한 규범이었던 ‘효’사상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역할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보은의 자세를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동몽선습’ 등의 전통육아서나 전래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거의 ‘효’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눈을 떠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았던 심청의 이야기나,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식을 희생물로 바쳤던 ‘하늘도 감동시킨 효자’의 이야기는 분명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눈 먼 어미취를 위험을 무릎쓰고 봉양하는 ‘새끼쥐의 효도’에서는 동물도 어버이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님을 동물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

이같이 뿌리깊은 ‘효’의 가치관, 장유유서의 유교적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가 내일의 보배이며 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야한다는 소과 방정환 선생의 생각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사회적인 변화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갔다. 가족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결손가족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는 어머니만이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동시에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일임된 심리적인 부성부재상황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과, 아동의 사회화과정에는 양 부모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해 아버지

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아버지의 역할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함께 바닷가 구경을 가기도 하며(교육부, 1996a),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조르는 동생을 달래서 자전거는 일요일에 타러 가고 아버지와 함께 저녁밥을 지어보자고 유도한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며 쌀을 씻고, 요리사처럼 능숙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교육부, 1996b).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써서 아빠가 퇴근하면 오늘 읽은 책을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교육부, 1996c).

또 인도의 민족운동지도자였던 네루는 딸 인디라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에서,

“생일날이 돌아오면 너는 으레 선물을 받고 축하 말을 듣기로 되어 있으나 이 형무소 안에서 무엇을 선물로 보내야 할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보낼 수는 없으므로 그 대신 바람이나 마음처럼 생긴 것, 형무소의 높은 담도 가로막지 못하는 것을 보내야겠다.”(Neru, 1993)

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사랑하는 딸에게 보낸 196통의 편지를 통해, 인류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에 직면하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아버지의 존재가 인디라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를 짐작케 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변화는 절실한 문제이며, 이러한 양육적이면서 자녀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발달에서의 아버지의 영향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는 필연적인 사실이며 이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에게 허약한 존재로 지각되고 거부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참여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적어도 아동에게 있어 아버지가 본받을 유능한 모델이며, 엄격하면서도 애정적이고 양육적인 존재로 지각될 때, 아버지는 아동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의 발달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보편적이다. 전통적인 남성성, 여성성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성역할 지향과 자기 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발달시킨 아동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성역할 개념을 발달시킨다. 여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유능한 남성적 모델을 보여주고 동시에 애정적일 때 일관성 있게 남아의 남성성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남성성, 양육성, 한계설정 등은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중요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Lamb, 1995)고 한다. 아버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자녀의 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아·여아 모두 권위적인 아버지의 태도는 지적 발달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온정과 통제가 적절히 배합된 민주적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은 더욱 높은 자기역량감을 갖는다(공인숙, 1993).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아버지는 자녀에게 독

특한 사회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보완해 준다(최경순, 1992)고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강한 애정의 소유자인 동시에 본받을만한 유능한 모델로 지각될 때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아버지의 존재유무나 아버지 자신의 평가보다는 아동의 지각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동의 관점에서 이들의 눈을 통해 묘사되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파악해 보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동화 '피터팬'에서 아버지는 해적과 동일 인물로 묘사된다. 가족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야단만 치다가 사라지는 인물, 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하면 해적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상과 일치한다. 아이들 못지않게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군림하며 자녀의 양육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여한다하더라도 이는 야단을 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지각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같이 아동발달에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논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를 통해 아동이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대한 아동의 지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아동의 시각에서 바람직하게 비춰지는 아버지의 상을 그려 보고자 한다.

Ⅲ. 자료수집 및 해석과정

1.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서, 연구자는 일차로 마포구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1학급 씩을 선정해 담임교사를 통해 아버지에게 대한 동시를 한편씩 써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동시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아 이 연구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차적으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남녀 아동 6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아동은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위치한 아동대상학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소속학교는 19개 초등학교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 구성은 남아 36명, 여아 33명, 학년별로는 5학년 35명, 2학년 34명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이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아동이 26명, 조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이 21명으로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고 핵가족인 가정의 아동이 더 많았다.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이었고, 학원의 성격상 교사가 전적으로 자료수집을 위해 아동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직접 학원을 방문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옆방에서 3-4명의 아동을 한조로 하여 연구자와의 직접면담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이들의 가족상황을 간단하게 조사한 다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직접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게끔 시로써 표현해 볼 수 있겠니?"라고 한 후 아버지에게 대한 평소의 생각, 느낌을 중심으로 동시를 한편 씩 써 보도록 하였다. 이에 소요된 시간은 한 조당 30-45분 이었고, 동시를 쓰는 도중이나 다 쓴 후에 아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후의 해석 과정에 참고로 하였다.

2. 자료의 해석과정

이와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동시들에 대한 해석

은 Kim(199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1) 1단계

먼저 아동이 쓴 하나하나의 동시를 읽으면서 그 시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귀절이나 시 전체가 연출하는 분위기를 파악해서 이를 기록하였다.

2) 2단계

다음으로 기록된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여러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기본테마와 소수의 아동이 지적했지만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변형테마를 찾아 보았다.

3) 3단계

다음 단계로 이를 종합해서 몇개의 주제를 선정했고, 이같이 선정된 주제에서 누락된 내용은 없으며, 이러한 주제가 동시를 통해 아동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에서 이탈되지 않았는지를 각각의 동시를 읽으면서 재확인, 첨가하였다.

4) 4단계

그리고 설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왜 이러한 주제가 아동에게 아버지의 중요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이러한 아동의 지각에 비추어 현재 우리 사회의 아버지 모습이 어느정도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자료의 해석 및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동시를 보기 위해서 시간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공동연구자와 함께 동시를 다시 읽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에 설정된 주제는 계속적으로 분화되고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2개의 주제와 이와 관

련된 12개의 하위주제로 분화, 통합되었다. 또한 주제의 해석과정에서 가능한한 연구자들의 시각을 배제하고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자의 주관성은 불가피하며, 이는 질적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관성은 바로 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3.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연구자 1〉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 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셨던 분이셨다. 그래서 나는 남달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인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전무용으로 개천예술제에 참가했을 때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개천예술제는 진주에서 뿐만아니라 경남지방의 큰 축제였다. 논개의 가장행렬이나 고적대 소리는 온 시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고 여러가지 행사들도 푸짐하게 열렸다. 지금처럼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그 당시, 모처럼 열리는 예술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행사장은 발디딜 틈도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학교에서 연습할 때와는 달리 무대위에 올라서자마자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던지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시선을 다소 앞쪽으로 둔 순간 낮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그 시간에 참석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였다. 176센티의 흰출한 키에 ‘게리 쿠퍼’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험잡한 아버지를 내가 발견하지 못할리가 없었다. 무대 위의 딸을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미소 띤 얼굴이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마음

의 여유를 찾아주었다. 발표회가 끝난 뒤, 무대 뒤로 오셔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던 아버지의 한마디는 나에게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곧장 집으로 가지지 않으셨다. 내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사주시고, 오랜만에 남강모래사장에서 활도 쏘아보고 소싸움도 구경했다. 그리고 저녁무렵 내 손을 붙잡고 축석루에서 서장대까지 오솔길을 걸으면서 말씀하셨다. "순화야, 저 빛깔 참 곱지."라고. 그 길은 아버지와 나와의 오랜 산책로였고 아버지는 석양 무렵의 시간을 서장대에서 보내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리고 많은 곳을 다녀보셨지만 서장대에서처럼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개천에 술재가 열릴 때면 이러한 아버지와 추억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내 눈 앞에 펼쳐진다.

또한 어린 시절 나는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둘러싸고 있는 산 뒤가 궁금했다.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그 산을 한번도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였다. 문둥이가 아이들을 잡아간다하여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그 산을 처음 올랐던 것도 아버지와 함께였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그림도구들을 가지고 가셨다. 산 아래 있는 비봉루라는 정자에서 주위의 풍경을 스케취하시고 물감으로 투명하게 칠하셨다. 그 그림은 유리액자에 끼워져서 우리집 마루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만에 정상에 올랐을 때 내 놀라움은 마치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의 전부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여러 지방을 다녀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산 너머 웅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와 산모퉁이를 돌아 굽이굽이 이어져 가는

길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러한 내 기분을 모르실 아버지가 아니었다. 산 위에 열려있는 산딸기와 앵두를 따 먹으면서 아버지는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까지 들춰가며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도 넓은 세상을 가 보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신 아버지가 위대해 보였고 동시에 우물안 개구리였던 나를 발견했다.

지금도 비봉산은 예나 다름없이 거기 그렇게 서 있다. 그리고 지금보면 그저 언덕보다 조금 높은 산일 뿐이다. 그러나 그 높이에 상관없이 그 산은 나에게 에베레스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아셨는지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봐 주셨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항상 더 크고 많은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어느누구도 채워줄 수없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나의 아버지:연구자 2〉

내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는 집안의 오빠들에게는 치약을 쓰도록 허락을 하시고 내게는 굵은 소금으로 이를 닦으라고 하셨다. 치약은 귀한 것이라서 남자들만 쓰고 여자는 싸고 혼한 소금이 나 쓰라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가 안계실 때면 치약튜브 가운데를 쪽 눌러서 이를 몇번씩 닦곤 했다.

오빠보다 달리기를 잘하던 나는 오빠와 달리기를 하면 언제나 이겼는데, 할머니께서는 내 등을 잡으시고 오빠를 먼저 가게 하셨다. 기집애가 오빠를 이기면 못쓴다고 야단을 치셨다. 나는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렀었다.

이렇게 남존여비사상에 놀려 지내던 내게 유학

생활을 끝낸 아버지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셨다. 당신의 유학생생활동안 나의 자라는 모습을 못 보신 아버지께서는 내게 정성을 다 하셨다. 나와 같이 만화가계도 같이 가서서 만화책을 같이 읽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초코렛을 사러 동대문 시장까지 가시곤 하셨다. 아버지는 예전에 딸이기 때문에 잃었던 권리들이 이제는 딸이기 때문에 아들들보다 더 잘해 주어야 한다고 식구들에게 이야기 하셨다. 치약이나 달리기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먹던 밥상에서도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골라 주시는 생선을 먹게 되었다. 용돈을 받을 때도 오빠들보다 먼저 주셨다.

나는 중학교 입학시험준비를 위하여 아버지 사무실이 있는 빌딩 5층에 있는 학원에 가서 입학시험을 보았다. 입학시험결과는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이었다. 학원 직원은 아버지 사무실과 학원이 같은 빌딩에 있으니 나를 입학시켜 주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을 하셨다. 그 직원은 그래도 보내시라고 계속 권유했고 아버지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참 난처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죄송하고 학원 직원의 호의를 물리치는 아버지가 냉정해 보이기도 하였다. 두어달 있다가 나는 다시 그 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는 점수가 좋아서 입학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나를 보내셨다. 학원은 9시가 다 되어서 끝나는데 아버지 사무실은 6시면 사무가 다 끝났었다. 아버지는 학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내 가방 두개를 다 들고 가시고 나는 아버지가 사 주신 과일을 들고 집에 가곤 하였다. 밤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나는 그날 일어난 일들을 시시콜콜이 얘기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시시한 질문이라도 묻는 질문마다 모두 답을 해 주셨다.

중학교에 입학 후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였다. 아버지께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보여드렸다. 성적표에는 영어가 'C'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그 길로 청계천 헌 책방에 가서서 영어동화책을 사 오셨다. 'Go Go English'라는 문제집도 사 오셨다. 동시에 영어 가정교사를 둘을 두시고 내게 낮동안 영어를 배우게 하셨다. 이로 인해 나는 영어 가정교사가 세명이나 된 것이다. 낮에 영어교사와 영어공부가 끝나면 저녁에는 아버지와 영어공부를 하였다. 우선 영어 동화책을 나온 이야기를 사전없이 그림과 글을 읽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짐작해 보도록 하시곤 'Go Go English'를 한 페이지 씩 풀었다. 혹시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나가시면 나는 그 날은 쉬는 날이라고 아버지께서 내 준 숙제를 안 해 놓을 때도 있었으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늦게 들어오셔도 하루도 빠지 않고 나를 불러 앉혀 놓고 영어 공부를 시키셨다. 여름방학 내내 영어 공부만 하였다. 어렵고 싫던 영어가 점점 자신이 붙고 재미있어졌다.

Ⅳ. 자료의 해석

아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동시으로써 묘사했으며, 그 모습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것,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 두개의 주제를 이루고 있었다. 가족부양자로서의 아버지는 〈부지런한 개미〉 〈우리집의 대장〉 〈달빛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버지〉 〈아버지 별명은 누렁이〉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버지는 〈담배 좀 끊어시지〉 〈엄마한테 혼나는 날에도 포근히 감싸주는 아빠〉 〈돼지 아빠〉로 그려지며, 아이들은 〈아버지께 보답하려〉라는 보은의 자세

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의 소리〉 〈주는 아빠〉 〈멋쟁이 아빠〉로 표현하고 있었다.

1. 아버지의 역할

〈부지런한 개미〉

아동에게 가장 강하게 부각된 아버지의 모습은 부양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부지런한 개미같다.

아버지께선 맨날맨날 회사에 나가신다.

얼마나 힘드실까?”(동시 1)

“헐레벌떡 헐레벌떡

힘차게 달리시는 우리 아버지.

우릴 먹여 살리려고

뛰어 다니시네.”(동시 4)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교수로서”(동시 6)

“아침 일찍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실까.

아침도 조금 드시고 나가셔서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동시

12)

‘개미와 베짖이’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개미는 항상 부지런한 동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맨날맨날 회사에 나가시는 아버지를 아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먹이를 옮겨나르는 개미에 비유했다. 이렇게 부지런

하지 않고는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생각했나 보다. 점잖게 걸터다니셔도 될텐데 뛰어다니셔야 하고, 때로는 낮에는 회사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1인2역의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가족 모두를 먹여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바쁘게 아침 일찍부터 나가시는 아버지가 식사인들 제대로 하고 나가셨을까? 또 아이들처럼 추운 겨울에는 방학이 있더라도 했을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의 봉사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집의 대장〉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정내 위치를 ‘대장’, ‘호주’, ‘가장’, ‘해결사’라는 언어로써 표현하고 있었다.

“우리 가정에 대장, 아버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아버지.”(동시 8)

“싱글벙글 웃는 우리집의 호주”(동시 20)

“우리 아버지는 우리집의 가장.

우리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동시 11)

“우리집의 가장이신 아버지.

그리고 또 자상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동시 18)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위치는 당연히 가정내의 우두머리로 묘사되며, 이러한

호칭에 맞게 책임감도 그만큼 무겁다. 어려운 일을 책임지시고 이를 척척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아버지는 아동에게 존경의 대상이다.

〈달빛 아빠〉

이같이 가정의 부양자,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니 아버지는 햇빛 세계가 아닌 달빛 세계에 존재하고 계신다.

“밝은 햇살이 우리집에 스며들면
매일 같은색 검은 양복 입고
이른 시간 출발하는 우리 아빠.
따뜻한 햇살 쬐는 아침에는 볼 수 없는 아빠.
하지만 달빛이 차갑게 비출 때는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동시 14)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전에
아빠께서는 햇빛을 피해 나가시죠.”(동시 15)

“아버지, 아버지, 왜 밤에 들어오세요?
6:00 쯤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다음부터 빨리 들어오세요.”(동시 16)

아이들이 표현한 아버지는 야행성이다. 밝은 햇빛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리 많은 양복이 있고 구두가 있다해도 검은 양복, 검은 구두로 표현된다. 검은 빛깔의 아빠이기 때문에 밝은 햇살이 들어오면 그곳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시며, 낮에 아프면 데려갈 수 없고 밤에 아플 때만 병원으로 데려가신다(동시 17). 그러나 그러한 달빛 세계에 있는 아빠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안타깝다.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햇빛 세계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집을 나간 것은 아이들 뿐만아니다. 단지 이유가 다를 뿐, 햇빛 세계인 가정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아버지도 포함된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버지〉

바쁘고 야행성인 아버지를 아이는 얼굴 한번 제대로 보았을리 없다. 달빛 나라의 아버지는 햇빛 나라의 아이들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나타난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버지.
회식이다 출장이다 바쁘신 아버지.”(동시 44)

“언제나 젊으셨던 아빠.
들어오실때마다
무엇인가 들고오셔서 놀아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자는 사이
살짝 들어오시는 우리 아빠.”(동시 45)

“회사에서 일잘하는 우리 아버지.
놀아달라고 해도 잘 안놀아주지만
우릴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가 나는 자랑스럽다.”(동시 51)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집에 오시자마자 피곤하시다며
놀아주지도 않고.”(동시 46)

매일 회사일로 출장이다 회식이다 바쁜 아버지, 아이가 잠든 시간에 들어오시고 아침 일찍 나가시니까 얼굴을 대할 시간도 없다. 또 설사 얼굴 대할 시간이 있어도 피곤하니까 잠자기 바쁘고 아이들과의 놀이는 뒷전으로 밀린다. 눈 앞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명령만 하다가 한번 사라지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타나도 피곤하다는 핑계가 앞선다.

〈아버지 별명은 누렁이〉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달빛 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당연히 피곤하고 지치고 불쌍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피곤한 몸 침대에 의지하는
아버지 별명은 누렁이.”(동시 2)

“우릴 위해 피땀 흘리시는 아버지
피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동시 7)

“아버지, 힘드신 우리 아버지.
씻더이를 킁킁대고 들고 다니실 생각하니
어느새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집에서는 웃으시지만
피곤하다고 안하시지만
나는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드신지.”(동시 5)

“잠도 못자는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동시 19)

“아버지, 아버지
흰머리가 많은 우리 아버지.”(동시 42)

“아버지는 매일 힘들게 일하러 나가신다.
비가 주룩주룩 눈이 평평 내려도
참고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지만
언제나 또 비가오나 눈이오나
일하러 가실 우리 아버지.”(동시 3)

하루종일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일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피곤한 몸 이끌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는 누렁이의 모습에 비유했다. 아버지가 흘리는 땀을 ‘피땀’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땀의 의미를 강조했고 피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표현함으로써 힘든 것을 강조했다. 피곤하셔도 돌아와서 내색하지 않지만, 오히려 웃으시지만, 씻더이를 킁킁대고 들고 다닐 아빠를 생각하니 아이는 눈물이 난다.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아빠가 불쌍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지치고 힘든 아버지는 당연히 흰머리가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힘든 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시는 모습을 신나고 즐겁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참고 나가시며, 잠시 집에서 쉬고 계시지만 다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담배 좀 끊으시지〉

피곤하고 힘든 아버지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술이나 담배에서 찾게 된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주무실땐 쿨룩쿨룩 담배 좀 끊으시지.
걱정해도 도저히 끊지않는 우리 아빠.”(동시 46)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술, 나쁜 술을 마셔요.
울 엄마, 나, 싫어, 싫어.
우리 아빠는 마구 좋아, 좋아.
우리 아버진 왜 술을 자주 마실까?”(동시 66)

“하지만 다 좋은데
매일 담배피시는 아버지.”(동시 47)

“우리 아빠는 술도 못마시고 담배도 못피십니다.
우리 아빠는 그래서 좋습니다.”(동시 49)

아이들은 골목골목 기침을 하면서도 담배를 끊었으면 하는 가족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않는 아빠 또 엄마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술을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아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다른 모든 면이 좋지만 매일 담배 피우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런 나쁜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아빠를 좋은 아빠로 표현했다.

성인의 눈에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음주, 흡연 문화가 아동의 눈에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피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오히려 감싸주는 듯한 표현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엄마한테 혼나는 날에도 포근히 감싸주는 아빠〉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아버지께 대해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보은의 자세를 보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굴 한번 보여 준 적이 없으니 자녀가 잘못해도 호되게 다룰 수가 없다.

“엄마한테 혼나는 날에도
포근히 감싸주는 아빠.”(동시 33)

“그러지 말아라, 말아라.
매보다는 사랑의 한마디가
먼저 나오는 아빠.”(동시 27)

“내가 공부 잘해도
내가 공부 못해도
항상 웃으시는 아빠.”(동시 51)

부양자로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의지하시는 아버지 별명은 누렁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자리는 침대이다. 밖에 나가서는 헐레벌떡 뛰어다니지만 집에서는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침에는 힘찬 구렁소리가 들리지만 밤에는 기침소리가 들린다고 했다(동시 34). 분명히 아버지는 일터에서 기운을 다 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오며 가정내에서는 기여할 것이 없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빈 자리를 메꾼 것이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훈육적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 것이 분명히 옷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전혀 시간투자를 못한 아버지로서는 옷을 수 밖에 없다. 못하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방관자적인 웃음이다. 자녀양육을 위해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자녀를 훈육시킬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익애적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아이는 버릇이 없으며 이러한 버릇을 바로 잡는 것은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가고 만다.

〈돼지 아빠〉

자녀에게 제대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결과 비롯된 아버지의 익애적인 태도는 버릇없는 아동을 양산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똥똥해서 돼지라고 부르지요.
아버지, 아버지,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도둑.
아버지 술마시고 들어오시면
방에서 마루로 쫓겨나신다.”(동시 48)

“화나실땐 골목강패처럼 무섭지만
조금 있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
(동시 47)

뚱뚱하다고 해서 아버지의 별명이 돼지가 되었다. 저녁에 늦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아버지는 담을 넘어오는 도둑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집안으로 들어오신다 해도 술을 마신 날은 냄새가 나서 방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마루로 쫓겨 나신다고 아버지를 묘사했다. 또 금방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지라도 화날 때의 아버지 모습은 골목강패에 비유되었고 피곤해 잠든 모습을 누렁이에 비유했다. 돼지, 도둑, 골목강패, 누렁이 등의 표현은 아버지와 관계가 과거의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면서 격의없이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분명히 격하된 것은 사실이다.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다.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버릇없이 구는 사람을 ‘호로자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부재, 즉 훈육자 부재상황에서의 아동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위의 예도 이러한 훈육자 부재상황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그래도 남자라고 자랑하신다”라는 앞서 동시에서의 표현에서처럼 자녀를 위해 한 것은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께 보답하려〉

소수의 동시에서 아버지는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나 아이들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렐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퇴근하신 아빠 모습은 피곤에 싸인 모습.
그런 아버지께 보답하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다.”(동시 7)

“우리들을 위해
새벽에 회사에 가셔서
한 밤중에 오시는 분.
그런 속에서 자라는 우리는
고마움을 느낀다.”(동시 20)

“언제나 고맙다는 생각만이
나의 머리를 스치게 하는 우리 아빠.”(동시 14)

“내가 일을 도와드리면
방긋웃는 아빠의 모습이 항상 멋지네.”(동시 21)

“저녁엔 아버지 암마해 드리는 나.
힘드신 아버지, 매일매일 힘드신 아버지.”(동시 23)

가족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상당히 힘든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아이들은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보답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가족사랑의 마음을 한편의 동시를 통해서나마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아동이 상당히 많았으며, 또 아버지의 그러한 노고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미리 읽은 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보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일을 도와드리거나 힘든 아빠에게 암마를 해 드림으로써 나름대로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다.

2. 아버지의 모습

〈사랑의 소리〉

아버지의 모습은 끊임없이 애정과 사랑을 주시

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언제나 포근한 느낌과 냄새가 나는
우리 아버지.”(동시 28)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사랑의 소리가 들리고
사랑의 냄새가 난다.”(동시 34)

“사랑, 사랑,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아버지.”(동시 28)

“해가 떠오르는 이른 시간
발빠르게 나가시는 우리 아빠.
가족들 곤한 잠 안깨우려고
까치밭로 조심조심 대문을 나선다.
자정이 다된 시간
벨소리에 쪼르르 달려나가면
지친 아빠 얼굴 현관에서 활짝 웃고
아빠 얼굴 주름살 따라 웃는다.”(동시 29)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같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포근하다. 사랑의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릴만큼 사랑이 넘쳐흐른다. 또 아버지는 매를 들기보다는 사랑의 말로써 자녀를 다스리려 한다. 아침에 힘들게 나가시면서도 아버지는 가족들의 곤한 잠을 깨울까봐 오히려 걱정하신다.

또 아버지의 사랑은 애정일변도이기보다는 엄격함과 자상함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릴 사랑하는 것도 만점.
엄격하신 것도 만점.”(동시 31)

“걸으로는 엄하셔도
속으로는 다정하신”(동시 30)

“자상하시지만
잘못을 하면 꾸중도 하시죠.
하지만 난 알아요.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동시 32)

아동은 엄격함과 자상함이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비록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꾸중을 하시고 엄하게 다루셔도 아동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주는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 뿐만아니라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월부터 토요일, 우리 아빠는
훌륭한 나라의 일꾼.
일요일 아침엔, 햇살을 피하지 않고
하루종일 가족과 놀아주지요.”(동시 15)

“시험을 못보면 위로해 주시고
심심할땐 놀아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동시 35)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나를 학원으로 데려다주시는 아버지.
한낮에 전화를 걸으셔서
공부 다 끝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밤에는 늦게까지 공부 도와주시고
TV까지 같이 봐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밍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동시 43)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시라.
우리집의 가장노릇 하시라.”(동시 41)

“아버지는 나만 보면 싱긋.
아버지는 동생만 보면 시끌.
어떨땐 싱글벙글 어떨땐 시끌시끌
음성이 큰 우리 아버지.
싱글벙글 아버지 정말 좋아요.
시끌벅적 아버지, “셋”.(동시 38)

상당히 많은 동시에서 아동은 ‘놀아주시는’ ‘위로해주시는’ ‘들어주시는’ ‘데려다주시는’ ‘힘써주시는’ ‘키워주시는’ 등의 표현으로 아버지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시느라 피곤하기도 했으련만 아버지는 일요일에 가족과 놀아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심심할 때는 언제나 놀이친구가 되어 준다. 그 뿐만이 아니다. 숙제를 확인하시고 공부까지 도와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는 모습도 보여 주신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아동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는 잘 놀아주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분(동시 13)이 아니라, 놀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동이 감성적으로 진정 원하고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학원으로 데려다주시고 공부도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왜 밉기도 하다고 표현했을까? 만약 나와 놀아주시는 아버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마도 이는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부를 생각하는 것임을 느끼고 있는 아동의 생각이 엿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성인들도 아이와 ‘놀았다’가 아니라 ‘놀아주었다’로 표현하듯이 아동도 나와 노는 아버지가 아니라 놀아주시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자녀와 놀 시간이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놀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보너스로 놀아준 듯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동시 38에서는 누구를 위해 놀아주는 것이 아닌 누구와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에게 ‘셋’ 할 수 있는 평등한 놀이친구로서의 관계를 엿보게 해 준다. 어린이의 세계를 떠나서 달빛 세계로 가버린 아빠가 다시 동심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마도 아동이 진정으로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멋쟁이 우리 아빠)

아동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우러러보고 싶은 멋쟁이였다.

“언제나 한결같은 따뜻한 마음.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지요.

키가 크신 아빠는 백두산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큰 기린.”(동시 55)

“허허.

나에게 잘 대해 주시는 아버지는 멋쟁이.”(동시 56)

“멋쟁이, 멋쟁이.

우리 우리 아버지는 손이 너무 커.

아버지는 키가 너무너무 커.”(동시 63)

아이들은 아버지가 멋지다고 했고 또 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가 잘못 비하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마음 속에서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위대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신체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월등하게 작은 아이의 입장에

서 아버지가 커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실제적인 신체 크기를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존재는 아이에게 있어서 우러러 보고 싶은 위대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런 위대한 아버지가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대 해주시니 아동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아동은 아버지를 멋쟁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

왜냐하면 맨날 신사복만 입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

왜냐하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시니까.”(동시 50)

“안경 쓴 멋쟁이 우리 아버지.

긴 코트에 검정구두 신으시면 멋있어진다.

우리 아버지는 덩치는 커지만 멋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하면 살짝 웃어 주신다.”(동시 56)

“멋쟁이신 우리 아버지.

회사에 갈 때는 멋진 넥타이를 메고 가시고.”

(동시 58)

“아버지는 멋쟁이.

새벽에 들어오셔서 돈을 벌어 오시는 우리 아버지.”(동시 59)

똑같이 멋쟁이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히 앞서와는 다른 멋쟁이다. 일하는 개미로서의 아버지가 멋지게 묘사되고 있다.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돈을 벌어 오시니까 멋있다. 검정 양복이나 검정 구두는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의 상징이다.

아버지의 양복이 검정색 하나만은 아닐텐데도 아이들은 아버지를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머니처럼 ‘빨주노초파남보’의 다양한 색깔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표현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다양한 역할의 차원으로 지각되지 않고 한가지 차원에서만 지각되며 그래서 아이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검정색의 단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아버지가 멋있다는 것은 바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멋지게 본 것이다. 또한 ‘신사복을 입으니까 멋쟁이’, ‘검정구두를 신으면 멋있어진다’라는 표현은 나갈 때는 멋있어지지만 집에 계실 때는 별로 멋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V. 논 의

동시를 통해 아동이 표현한 아버지는 실제로 아버지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것, 있는 그대로의 혹은 바라보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과 관련된 것의 두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역할은 〈부지런한 개미〉 〈우리집의 대장〉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 〈달빛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버지〉 〈아버지 별명은 누렁이〉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아버지는 〈담배 좀 끊으시지〉 〈엄마한테 혼나는 날에도 포근히 감싸주는 아빠〉 〈돼지 아빠〉의 존재로 연결되며, 그리고 아동은 이러한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께 보답하려〉라는 보은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아동이 보는,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사랑의 소리〉 〈주는 아버지〉이며 위대하고 멋진 〈멋쟁이 우리 아빠〉로 표현되었다. 아동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애정적이고 뭐든지 줄 수 있는 멋쟁이고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 일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아버지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아이들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인기가수 신해철의 “아버지와 나”라는 곡에는 아래와 같은 가사가 들어 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올라다 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중략)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벌어 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씹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도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 뿐이다.”

아이들의 동시에서도 이러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음 속에서 아버지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 줄 수 있는 위대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감각적으로 올라다 본 아버지의 모습과 현실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간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아이들은 경험하고 있었다.

1.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사회변화에 따라 도덕적 안내자, 가족부양자, 성역할 모델, 양육적 보호자 등의 모습으로 변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요소는 가족부양자로서

의 역할이었다. 가족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아동의 눈에도 도저히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를 아이들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소공녀’의 여주인공도 아버지의 과산으로 공주처럼 대접받던 귀한 신분에서 하루 아침에 다락방에 기거하며 일을 해야하는 하녀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한다.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동은 실생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동화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지각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과정의 남아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학년별로도 고학년의 경우에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학년 아동의 경우 놀이상대자로서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중요하다면 고학년 아동의 경우 부양자로서의 힘든 역할을 수행하느라 피곤한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학년 아동은 이러한 아버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놀러가자고 조르는 동생과 나/아버지 생각 안하고 우리 생각만 하네.”(동시 23)에서 처럼 오히려 자책과 비난의 자세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표현된 경우도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벌어서/나는 좋아라 펄쩍펄쩍 뛰죠.”(동시 24)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경우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잘 수행하는 아빠는 최고로 평가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을 고생시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취질 수 밖에 없으며, 경제

적 능력이 곧 훌륭한 아버지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수입이 어떤 이유에서 아동의 기분을 필적 뿔만큼 좋게 해 주는지? 아마도 이는 어머니의 생각을 내면화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녀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빠 월급이 올랐어요.”하고 자랑하는 아이처럼, 비록 같이 놀아주지 않아도 갖고 싶은 것은 모두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아동에게 가장 유능한 아버지로 부각될 수 있다.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은 곧 들어올 때 선물을 항상 들고 들어오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도 표현되었고, 선물 보따리가 빈약한 산타는 당연히 무능한 아버지로 지각될 수 밖에 없다.

부양자로서의 역할 못지 않게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의식은 상당 부분 변화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이들은 아버지를 가정의 대표자이며, 가족내의 어려운 문제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유능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는 가부장제 가족에서 계승되어 오던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잠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은 모두 남아의 동사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가족형태는 점차 핵가족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제 확대가족의 잔재를 실감케 해 준다. 겉으로는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남아출산 비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김희평, 1996). 그 결과 양육과정에서 남아는 자연스럽게 대를 잇는다는 생각을 여아에 비해 자주하

게 되며, 부계로 전승되는 족보나 ‘姓’을 통해서도 호주나 가장과 같은 용어들에 보다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또 한편에서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아버지는 자녀와 얼굴 대할 시간이 없는 달빛 나라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 모습은 당연히 지치고 힘들며 불쌍하기까지 하다.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 집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아버지이므로, 매일매일을 햇빛 세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바깥 세계를 검은 빛깔로, 아동의 생활공간인 가정은 햇빛이 환히 비치는 곳으로 대비시켰고, 검은 빛깔의 아버지는 밝은 햇빛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같이 바쁜 달빛 나라의 아버지가 햇빛 나라의 아동과 놀아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놀아주고 시간을 함께 하는 아버지에 대해 호감을 표현했다. 바쁘고 고된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은 집안에 들어와서 소파에 편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는 모습이며, 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역할모델로서 아버지를 따르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 형제 등의 주변인물의 모범적인 행실과 바람직한 모델제시가 전통 한국교육의 출발점이었다(유안진, 1995)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기려는 많은 차량의 홍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많은 아버지들이 상당히 가정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며, 본

연구자가 강의하는 사회교육원의 자녀양육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아버지도 계시기도 하다. 이는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으로 돌리고 이에 참여하는 것을 남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던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변화한 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바쁘고 피곤해서 같이 놀아 줄 시간이라고는 없는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할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비록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이를 자녀교육에 할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할애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할 일이 많고 바빠져버린 아이들의 상황도 한 몫을 한다고 본다.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생된 또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힘들고 피곤한 역할을 잊기 위해서라고 애써 아버지를 두둔해 주는 표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마도 이는 술이나 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을 때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마셔대고, 피워대는 우리의 음주, 흡연 문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술, 담배 자체보다도 술을 마신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가족내 상황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아버지가 조용히 잠자지 않는다.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를 질러서 가족들의 곤한 잠을 깨워 놓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흡연장소가 아파트 베란다로, 공공기관에서의 흡연구역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주체 못하고 거실에 버티고 앉아 가족 모두에게 공해를 선물하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도 긍정적으로 비춰질 리가 없다.

동시에서 아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버지가 좋다고 했다. 이는 우리의 음주, 흡연 문화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남자흡연율은 73.2%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잘못된 음주 습관에서 일부 비롯되는 간암 사망율도 세계 1위로 나타났다(김희평, 1996). 술을 마시면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것이 통례이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거리를 비틀거리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우리의 음주, 흡연 문화의 한 부분이다.

또한 이렇게 바쁘고 지친 아버지는 자녀의 생활에 참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시간 투자를 못한 결과 자녀에 대한 훈육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고 걸둘게 된다. 그러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다. 바쁜 시간을 핑계로 가정내의 역할에 소홀하다 보니 어쩌다 시간을 내어 봐도 이미 할 일이 없어진 상태이다. 가정내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는 걸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단위는 어머니와 자녀들로만 뭉쳐진 삶의 터전이다. 어쩌다 돌아온 인기없는 아버지는 당연히 익애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자녀수의 감소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느정도의 과잉보호는 묵과되고 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야단을 쳐야하는 상황인데도 야단을 칠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는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면 약은 방자하게 되므로 엄격한 것과 사랑하는 것의 중간을 취하여야 한다는 사소절(김종권, 1993)의 내용은 이러한 익애적 태도의 단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익애적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견딜 줄 모르며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며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또한 자녀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훈육을 하고 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도덕적 훈련자로

서의 아버지의 기능상실은 버릇없는 아동을 만들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위상격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어머니의 위상을 가늠케 한다. “엄마한테 혼나는 아빠”(동시 33), “술마시고 들어오면 마루로 쫓겨난다.”(동시 48) 등의 표현은 엄부자모가 아닌 엄모자부형의 역할변화를 부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오히려 어머니가 이를 감싸주는 관계가 일반적이었지만 그와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리어 어머니에게 찢절때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다. 아버지는 아동을 훈계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로 안내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면 자녀가 아버지를 피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온정적이면서 동시에 엄한 아버지는 자녀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계학, 1991).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비하현상이 소수의 동시에서 표현된 것이지만 이는 남아의 동일시대상으로서나 여아에게 바람직한 이성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아버지에게 대해 아동은 보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고(동시 13),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동시 12)라고 표현했다. ‘위해서’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 인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녀는 이에 보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

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동시의 끝머리에서 앞귀결의 표현과는 상반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정말 좋아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싫을 때도 있을텐데 왜 싫다고 말을 안할까? ‘난 그래서 아빠가 싫어요’의 표현이 보이지 않은 것은 교육을 통해 배운 도덕적 의무감이 얼마나 크게 아동의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같이 힘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한 아동도 있었다. 이에 대한 반응을 다시 초등학교 5학년생 5명에게 얻어본 결과도 유사했는데, 4명의 아동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 역할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이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선의 보답이라는 생각은 우리 사회를 살아 온 사람이면 아마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수궁이 가는 생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다지 부유하고 안정되지 못했던 우리의 부모세대는 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Kim, 1995)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만큼 과도한 우리의 교육열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는 부모의 자기희생과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자녀의 왜곡된 보은의 자세가 합쳐진 결과로 생각된다.

여성의 취업증가로 여성이 과거에 남성들이 전담했던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많은 부분 분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지금보다 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한 시대가 있었던가? 돈 한푼 벌어들이지 않아도 큰 소리 땡땡치던 예전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강압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남게 되었고, 회피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부양자적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한 성장을 보장해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며, 지나친 부양자적 역할강조현상은 오히려 아동의 성장에 역기능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바쁘고 피곤한 달빛 나라의 아버지는 아동의 양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 결과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익애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게 되며 버릇없는 아이들을 양산하게 된다.

2. 아버지의 모습

아동의 시에 나타난 애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이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같은 애정적인 차원으로 변화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서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좋은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안아주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사랑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Bigner, 1986). 우리 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의식의 서구화, 핵가족으로의 변화 등 여러 사회변화에 따른 애정표현방식의 변화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적, 애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증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정적인 아버지의 존재는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족한 면까지도 모두 수용하는 자상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애정적인 면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엄격함은 전통적인 아동양육의 연함으로,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아버지 모습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김향은, 1995). 아버지가 강하고 엄격하면서 애정적으로 지각될 때 동일시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애정일변도의 아버지의 모습보다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동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대로 두거나 야단치지 않는 아버지를 좋지 않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다(Bigner, 1986).

아버지의 애정적 측면에 대한 지각은 여아에게서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표현되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생활에서 남성적인 아버지도 딸과의 관계에서는 온정적, 양육적으로 대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동성인 아들보다 딸이 더 귀엽고 신기하게 생각될 수 있다. 자기의 육신이 여성으로 연장되었다는 신기함과 자기와 가장 닮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며 딸은 아들처럼 집을 계승할 후계자와 가장이라는 권리의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이광규, 1990).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의 여러 기능이 사회로 상당 부분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애정적 기능은 가족의 고유한 기능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많은 동시에서 부양자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되고 자녀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놀이상대자로서 양육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었다. 아버지의 존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그려졌다.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에게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로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에게 대해 아동은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는 아동과 함께 노는 “play with”의 아버지가 아니라 놀아주시는 “play for”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전자가 아버지와 아동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참여하는 의미라면, 후자는 상하관계를 전제로 봉사하는 차원에서의 놀이다(Kim, 1995). 자녀와 노는 것이 흥겹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놀아주는 놀이다. 그러나 놀아주는 사람하고는 한계가 있다. 놀아 주는 아빠를 위해서는 보답을 해 주어야 한다. 앞서 아동이 표현했던 아버지에게 대한 보답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기 싫지만 참고 해 주셨으니까 나도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아이들 모두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듯한 모습을 보게 한다. 그러나 아동은 함께 노는 아버지가 아니라 놀아주시는 아버지지만 이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참여는 놀이상대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학교까지 태워주고 저녁에 공부 도와주시면서 아동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며, 나아가 아버지는 말로만 가르치는 훈육이 아니라 몸소 실천을 통해서 아동에게 ‘효’의 개념을 심어주기도 한다. 우리 전통가족에서 가족내의 상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었던 ‘효’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시작되었다(유안진, 1995)고 볼 수 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억지로 보내는 것

이 아니라 상호간에 몰입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족내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다(Stinnett, 1984).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하는 것이다. 이같이 시간을 함께 하고 놀아주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가 자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아버지의 참여는 어머니와는 다른 측면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학교와 또래집단에서의 적응을 도와주고 가족이라는 세계를 체험하게 해 준다(이원호 역, 1995). 아버지와 아동간의 대화시간이 짧을수록 불만이 높다는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아동문제의 예방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정문자, 1987).

나아가 아버지는 아동의 눈에 우러러보고 싶은 백두산 같은 존재로 표현되었다. 소수의 동시에서 아버지는 비하된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아동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위대하고 멋진 모습이었다.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존재는 나를 보다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이며 동시에 멋진 대상이다.

남아와 여아는 모두 아버지를 멋지다고 했지만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시 50, 58, 59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아는 벅타이를 메고 출근하고 돈을 벌어 오시는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멋지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여아는 동시 55, 56, 63에서 처럼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의 모습이나 태도와 관련시켜 아버지를 멋지다고 표현했다. 즉 남아는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아는 아버지라는 대상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아버지에 대한 남아의 동일시 과정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들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아버지와 딸과의 애정적, 양육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아버지는 애정적이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며 동시에 우러러 볼 수 있는 위대하고 멋진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아동은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접촉의 욕구를 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자로서의 역할이나 잘 해 주기를 기대하고, 제시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려고 애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러한 촉감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를 소망하고 있었다. Harlow의 연구(Bigner, 1986)에서 처럼 원숭이가 철사어머니보다도 천으로 된 어머니를 선호하듯, 인간의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었다. 단순히 가득찬 젖병으로 배고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아버지의 냄새, 소리를 원하며 흥겹게 함께 노는 아버지를 아이들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달빛 세계가 아닌 햇빛 세계로 나와야 한다. 사회전반적인 의식전환이나 아버지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젖병만 물린 철사아버지만 남겨놓을 뿐이다. 이제에는 젖병에 더 많은 젖을 넣어주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아버지가 햇빛 세계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모습을 파악해 보았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를 성인의 관점에서 제작한 질문지가 아니라 동시를 통해 아동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게 하였다. 이들 자료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표현은 상당히 진솔했고 가식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아동의 관점이나 생각에 한걸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음은 연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69명의 국민학교 아동에 대상으로 직접면담의 형식으로 수집된 동시의 내용은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가정에 따라, 아버지와 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동시에서 아동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족 부양자,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시켜, 혹은 이러한 역할강조현상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문제점이나 아버지에 대한 보답과 관련시켜 묘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 진정으로 아동이 소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부양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남성의 도구적 역할이 경감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도 주된 아버지의 역할로 지각되고 있었다. 또한 '가장', '호주', '대장' 등의 표현으로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러한 지위나 호칭에 알맞게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에 대한 책임자이며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유능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었다.

둘째, 부양자적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잊혀지는 부분에 대한 것도 표현되었다. 이러한 달빛 나라의 아버지는 햇빛 나라의 자녀와는 동떨어진 세계에 존재하며 얼굴 한번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며, 지치고 피곤한 누렁이의 모습이
다.

세째, 또한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바쁜 아버지는 자녀양육의 직접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익애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위상은 격하되어 나타났다.

네째, 이처럼 바쁘고 피곤한 아버지는 대부분 술, 담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동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는 술, 담배 자체보다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 흡연문화와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말해 주고 있다.

다섯째, 그러나 아동은 이렇게 힘든 아버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나 보은의 자세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여섯째,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특징적으로 변화한 부분은 아동의 눈에 비친 자상하고 애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자녀가 귀여워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애정표현방식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아동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 상대자나 조력자, 행동모델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었다. 놀아 주고, 위로해 주고, 도와 주는 아버지의 존재는 아동에게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다해 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아동과 놀아주는 아버지가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여덟째, 몇몇 동시에서 표현된 아버지의 위상은 예전에 비해 격하된 느낌이었으나 아동은 아버지를 멋지다고 했고 그리고 위대하다고 표현했다.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가 멋지기도 했고, 부양자로서의 아버지가 멋지다고도 했고 이유야 다양했지만 아동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아버지는 멋지고 위대한 분으로 표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이 본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델에서 부양자적인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아동은 자신을 사랑해 주고, 함께 놀아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아버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위대하고 멋진 존재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해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내의 아버지, 남편, 아들의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발적이고 활동적이며 열기가 넘치는 존재인 아동기가 정해진 구조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듯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존재를 지나치게 부양자적 역할이라는 틀 속에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부양자적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과소평가될 수 없지만, 이에 대해 다소는 융통성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진정한 아동발달의 동반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올바른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남성에게 있어 아직까지 아동발달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다. 아동양육의 책임을 공감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주변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아버지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애정적이고 양육적인 아버지를 통해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동

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사랑을 통해 아동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지나쳐 억애적이 된다면 아동의 성장에 자양분이 될 수 없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아버지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내도록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아버지 참관일, 일일교사제 등의 활동을 통해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동은 아버지라는 역할모델을 통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의 아동은 물리적인 아버지는 존재하되 심리적인 부성부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동에 대해 경제적 책임 뿐만 아니라 역할모델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아버지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선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생활에 시간을 내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이라는 정감과 두려움이라는 정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격발달의 실체이며, 이러한 사랑과 두려움은 엄부자모로부터의 가정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양된다고 한다(이계학, 1995). 과거와 같이 권위적이고 다른 가족원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의 위상정립이 아니라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효과를 전제로 할 때, 적어도 아버지는 유능한 존재로 존경받는 대상으로 아동에게 지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 앞서 사회전반적인 제도나 관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우리 부모세대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입을 것 입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잠갈 때 잠

가지 않은 일벌레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생존 자체가 문제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모세대에게는 자녀와의 하루하루의 경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성장하던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남보란 듯이, 먹을 걱정없이 사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최종의 목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이러한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난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녀의 생활에 함께 참여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한 '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회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을 희생시키고, 한 개인의 성공이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등은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1년에 한두번 씩 마련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려는 아버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처럼 활발하진 않지만 초·중등학교에서도 휴가원을 내고 1일 명예교사나 특별활동시간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윤양섭, 1996). 사회전반적인 태도나 관념의 변화가 이러한 아버지들의 의식변화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정부나 기업차원에서의 배려가 선행되지 않을 때,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서 계속 방관자로 남아있게 될 것이며, 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지나치게 힘들고 불쌍하게까지 부각된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막대한 사교육비 충당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적 욕구도 증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사교육비 부담도 이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충당하기가 힘들워 자살한 아버지, 과출부로 일하러 간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연구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다. 어머니가 이러한 지경에 있을진대 전통적으로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아버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버지의 위상격하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투자한 시간이 없어 훈육자로서의 기능상실이나 이로 인한 익애적 태도도 원인 제공을 하지만, 대학 입시가 가정의 어떤 목표보다도 우선시되기 때문에 인간교육은 커녕, 학교가 끝나고도 사교육기관으로 전전하는 아이들이 축은해 꾸중할 수도 또 꾸중할 시간도 없다. 오히려 충분한 과외비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항상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대접을 받을 뿐이다.

잘못된 사회제도의 희생물은 자녀세대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에 까지 확산된다. 이러한 사회체계 내에서 실종된 것은 아동기(Suransky, 1994)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부모기 모두가 실종되어 버렸다. 가정이라는 단위는 보다 큰 거시체계 내에서 주체가 되지 못했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도 이러한 사회체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는 논의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논의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관계에서의 문제는 상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체계의 변화가 선행될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사회체계의 중심이 각 개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변화의 주체가 아버지 자신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 동시를 통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히 전 세대의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변화한 모습이다. 부양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나 이들의 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놀아주는 모습은 상당히 변화한 부분이며, 아동의 성장 발달에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이로 인한 아버지의 위상격하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되고 변화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갖는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양적 연구를 통한 법칙의 설명에서 실제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주관적연구로 전환하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사회과학은 보다 일반성을 가진 것으로 자리잡고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Geertz(1983)의 생각에 본 연구자들도 공감한다. 아동의 관점에서, 그들을 연구하기보다는 배운다는 자세를 가질 때, 아동연구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기여한다는 아동학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인숙(1993).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자
기역량에 대한 지각. *한국아동학회지*, 10
(1), 64-78.
- 교육부(1996a). 아버지를 따라서(초등학교 국어
1-1). 서울:교육부.
- 교육부(1996b). 우리집(초등학교 국어 2-1). 서
울:교육부.
- 교육부(1996c). 정성을 담아서(초등학교 국어 3
-1). 서울:교육부.

- 김시혜(1995). 현상학적 접근; 아동. 가족 연구를 위한 최신통계기법. 제 17차 한국아동학회 추계 워크샵. 5-27.
- 김종권 역(1993). 사소절. 서울:명문당.
- 김향은(1995). 전통육아서에 나타난 아동교육원리. 한국아동학회지, 16(2), 65-80.
- 김희평(1996. 6. 7).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동아일보. p. 3.
- 유안진(1994).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아동. 제 16차 한국아동학회 추계워크샵, 5-23.
- 유안진(1995). 아동양육. 서울:문음사.
- 윤양섭(1996. 1. 11). 자상한 아버지 늘고 있다. 동아일보. p. 19.
- 이계학(1991). 인격교육론. 서울:성원사.
- 이계학(1995). 효와 엄부자모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대적 조명. 제 17차 한국아동학회 춘계워크샵.
- 이광규(1990).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 이원호 역(1995). 아버지의 자녀교육. 서울:양서원.
- 정문자(1987). 발달주기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한국아동학회지, 8(2), 107-115.
- 조석희(1996). 당신도 자녀를 영재로 키울 수 있다. 서울:조선일보사.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igner, J. J. (1986). 부모교육입문; 부모자녀관계. 이은화. 이경우(역). 서울:창지사. (원본발간일, 1979).
- Geertz, C. (1983). *Local Knowledge*. New York:Basic Books.
- Kim, Shi Hae (1995). Programmed Childhood: Korean Children's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Doctori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Lamb, M. E. (1995). 아버지의 역할과 아동발달. 김광웅. 박성연(역). 서울:이대출판부. (원본발간일, 1981).
- Neru, P. J. (1993). 중앙완전국어 5; 딸에게 주는 편지. 중앙교육연구원(역). 서울:중앙교육연구원.
- Spradl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tinnett, N. (1994). *Relationship in Marriage & the Family*. McMillan Co.
- Sunransky, V. P. (1994). 아동기의 실증. 윤종희. 이재연(역). 서울:교보문고. (원본발간일, 1982).